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송경재 | 경희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네트워크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는 시도이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서 한국의 2008년 촛불집회(candle demonstration)에 천착해, 이를 네트워크 시민운동(networked civil movement)으로 규정하고 동학을 분석, 모델화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은 귀납적 추론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와 웹 트래픽(web traffic)과 게시물 분석을 활용한 계량 연구를 병행해서 적용할 것이다.

연구 결과, 네트워크 시민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적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정보네트워크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성이 강화되고, 참여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그리고 시민운동 전개과정에서도 과거와 다른 형태로서 네트워크 시민운동으로 진화하고 네트워킹 과정에서 정보네트워크, 연계네트워크, 참여네트워크 등 다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에서 살펴본 바, 네트워크 군중과 시민운동의 등장으로 웹 2.0의 참여·개방·공유 플랫폼은 더 확장된 의미의 시민운동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의 정보와 연계, 참여네트워크는 언제든지 새로운 의제형성과 시민운동의 진원지로 진화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주제어 | 네트워크 시대, 촛불집회, 네트워크 시민운동, 시민운동 플랫폼, 다음 아고라, 사이버 커뮤니티, 스트리트 저널리즘

1.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변화

21세기 인터넷 네트워크 확산은 기존에 물적·인적 정치자원(political resources)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운동 진영에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제공했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진전은 전통적 정치과정에서 매개집단을 통한 일방향적 의사집성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과 이를 활용한 시민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과정에서 새로운 매개변인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s) 활용으로 시민사회운동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민운동의 연원은 1994년 멕시코 사파티스타(Zapatista) 저항운동에서 시작된다. 멕시코 농민봉기의 정당성과 멕시코 정부의 잘못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 운동은 양심적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저항운동을 지속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네트워크 시민운동은 정치자원이 제한된 조건에서 정보제공과 조직화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어 1999년 시애틀 WTO 반대시위, 중국 파룬궁(法輪功), 2001년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축출한 제2의 피플 파워(people power 2), 2002년 이라크전쟁 글로벌 반대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시민운동은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형성과 함께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잠재력과 폭발성을 확인해준다(Chadwick 2006; 송경재 2008; 김용철·윤성이 2005).

이런 현상은 비단 국제이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2000년 총선 낙천낙선 운동과 2002년 효순·미선양 여중생 촛불집회,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5년 국민연금의 비밀 사건, 서귀포 부실 도시락과 군산 건빵 도시락 사건 등 인터넷발(發) 단일 이슈 운동(single issue movement)은 시민운동의 한 전형이 되었다(백옥인 2001; 조화순·송경재 2004).

이와 같이 인터넷 네트워크는 그 연계성과 행위자 스스로가 노드(node)와 링크(link), 허브(hub)가 되면서 재형성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공간이 된 지 오래다. 김상배(2007)가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일상사나 이익을 중심으로 의제를

만들고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문제해결 또는 대중설득을 도모하는 집합행위에 주목하고 밑으로부터 조직되는 다중(multitude)의 일례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ICTs와 변화된 시민성의 상호작용적인 공진화에 따른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톱-다운 형의 시민운동과는 다른 느슨한 연계와 탈집중·탈권위의 시민문화를 만들었다.

네트워크 사회운동 양식에 대해 MaCaughey와 Ayers(2003)는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전통적인 시민운동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시민운동은 ICTs를 활용한 자발적 시민참여이자 네트워크상의 시민, 즉 네티즌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의된다(조화순·송경재 2004). 따라서 네트워크 시민운동은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사회이슈가 네트워크로 침투, 확산되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기도 한다(김의영 2004; 백육인 2001).

본 연구는 정보혁명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결합인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의 등장에 천착하여 네트워크사회의 시민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ICTs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서 2008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자발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동학을 분석, 모델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시민운동의 이론적 논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동학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은 귀납적 추론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웹 트래픽(web traffic)과 게시글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 연구(quantitative research)를 병행해서 적용할 것이다(Ragin 1987; King, Keohane & Verba 1994). 세부적으로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비교연구, 기존 문헌연구, 기 발표된 설문조사 자료 활용, 웹 트래픽 분석 데이터, 인터넷 검색,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했다.

II. 네트워크 시민운동

인터넷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흐름은 주로 확산성에 주목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강조한다. 초기 인터넷이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로 지칭된 것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최근에는 참여·개방·공유를 특성으로 하는 웹 2.0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방식으로 구축되며 개인화되지만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Wellman 2001).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은 오프라인의 사회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적인 사회의 온라인 버전(version)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 사회운동은 사회의 제반 가치와 제도를 변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적인 행동으로 종종 표출된다. 카스텔(2001)의 주장대로 인터넷은 정보시대에 부각되는 시민성의 기본적 특성과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은 과거 물질·정보·정치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율적인 시민 조직화와 의식함양, 디지털 시민 등장에 따른 참여채널의 확대에 주목한다.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실험을 통해 사이버 풀뿌리 민주주의(cyber grass-roots democracy)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OECD 2003; Norris 2002; Davis, Elin and Reeher 2002; 송경재 2005; 김경미 2006; 김의영 2004). 그렇지만 네트워크 시민운동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학자들은 과도한 참여로 인한 전통적인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왜곡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일방의 의견만이 전달되는 강화효과(reinforcement effects)나 디지털 포퓰리즘(digital populism), 토론과 숙의(deliberation)의 부재가 나타날 것을 지적한다(Putnam 2000; 조화순 2008; 송경재 2008).

이상 네트워크 시민운동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연구자들은 주로 시민사회

영역확대와 잠재력에 주목해 연구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 라인골드(Rheingold 2002)는 다양한 이슈에 근거해 시민운동의 형태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참여하는 현명한 군중의 시민운동이란 의미로 “참여군중(smart mobs)”으로 표현한다. 라인골드는 참여군중 논의의 요체를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나(파운드스톤 2004), 올슨(Olson 1971)의 집단행동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나타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협력하는 시민과 ICTs가 결합되면서 나타난다고 본다. 아울러 부당한 국가나 시장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저항과 현명함을 가진 시민운동에 주목한다.

네트워크 이론가인 벤클러(Benkler 2007)는 네트워크 공론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플랫폼이 형성되어 NGO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는 모든 시민에게 공론장에서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고, 그 능력은 주요한 시민운동 자원이 된다고 보았다.

또 네트워크 사회를 분석한 반 다이크(Van Dijk 2002)는 인터넷의 특성과 상호주관적인 맥락의 결합에 주목하고 이를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으로 제시한다. 이를 확대한다면 단순한 소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과 행위자들 간의 결집으로 연계된 시민운동 전 과정에서 네트워크 상호작용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통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집단행동으로의 연계성까지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Negri and Hardt 2008)는 소통과 행동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든 차이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공통성을 발견하고 이는 공동으로 구성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완성된다.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개념은 단순히 저항의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논의를 인정한다면, 시민사회가 네트워크와 결합되면서 네트워크 사회운동·네트워크 공론장의 형성으로 네트워크 시민운동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민운동의 조직과 형성, 작동원리에 있어서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기존의 포드주의적인 운동방식에서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조직운동으로 체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네그리와 하트(2008, 117-118)가 강조한 바, 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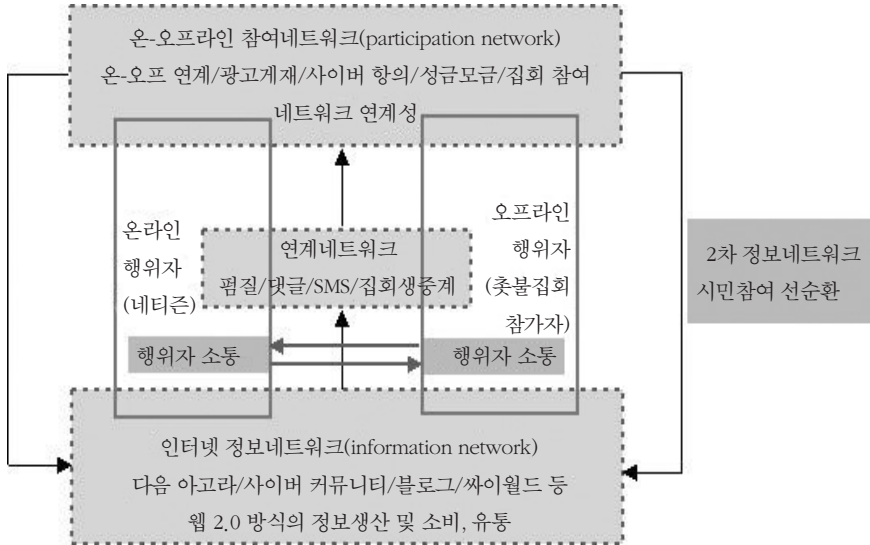
심적인 형식으로 상호 소통 속에서의 결절체들 간의 환원 불가능한 복수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의 새로운 시민으로 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운동 네트워크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을 가능케 한다. 버만과 멀리간(Berman and Mulligan 2003)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시민운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단순히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운동의 행위자의 행태와 표출적인 해석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내부적인 동학 차원에서 시민운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단순히 시민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의 소통 흐름을 촉진하여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버만과 멀리간에 따르면, 인터넷의 특성 자체는 온라인에서 주의주장을 용이하게 전달한다고 본다. 이유는 네트워크의 분권화와 개방성, 글로벌적 접근, 정보가 풍부하고 거래비용이 낮고, 상호작용과 이용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함을 들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슈를 지지하는 시민운동의 인터넷 영향력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 지지형 시민운동의 특성을 네트워크적인 해석으로 다음 4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바이러스와 같은 정보의 확산, 둘째, 이슈에 대한 유연한 조직화(ad-hocracy),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론형성 기능, 넷째, 참여의 게이트웨이(gateway)가 그것이다(Berman and Mulligan 2003, 81-91). 버만과 멀리간의 접근은 시민운동이 단순히 정보제공에서 동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행동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층위가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런 복잡성은 단순히 기존 온라인에서 발생한 시민운동의 오프라인화, 내지는 오프라인 시민운동의 온라인화라는 이분법적인 분석의 한계를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시민운동 연구의 논의과정은 단순히 행위자인 시민을 대상화하고 이들을 온라인 영역에서의 조직화와 동원의 기제로 분석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 간에 형성된 노드들의 집합체인 네트워크로 해석한다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네트워크, 조직화와 동원이 가능한 행동 네트워크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민운동을 단순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양자 간의 층위적인 결합과 이를 통해 나타난 현상해석을 위해서는 기존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자는 단순한 평면적인 인터

〈그림 1〉 네트워크 시민운동 모델



넷 매개 시민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기보다는 각각의 정보와 연계 및 조직화, 그리고 행동 네트워크가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성되는지, 그리고 구성의 동학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연구자는 “네트워크 시민운동 모델 또는 네트워크 군중 모델(model of networked civil movement or networked mobs)” 로 제시한다.

III. 네트워크 시민운동 분석: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1. 사건의 원인 및 전개과정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배경은 여러 원인이 있다. 먼저 직접적인 원

〈표 1〉 2008 촛불집회 개요

월	일	주요 사건
4	15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18	• 한-미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등 7개 청소년 단체가 모인 ‘0교시·우열반·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회원 51명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촛불시위 시작
	29	• PD수첩 광우병 관련 의혹 방송
5	2	• 1차 청계광장 촛불시위 (10대 청소년 중심 약 1만 명 참가)
	6	• 1,700여 시민사회단체와 사이버 커뮤니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
	13	• 이영수 경찰청장 불법시위 엄단 및 배후자 색출 기자 간담회
	15	• 정부 장관 고시 연기
	22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
	24	• 17차 촛불집회 후 첫 거리 시위 및 밤샘 집회
	25	• 경찰, 도로 시위자 37명 최초 연행
	29	• 정부, 장관 고시 강행
6	1일	• 경찰, 물대포 동원 촛불집회 강제 진압
	5~8	• 국민대책회의, 72시간 국민MT 진행
	10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 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 컨테이너 박스 ‘명박산성’ 등장 (주최측 추산 70만 명 참가)
	19	• 제1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 “빠져리게 반성” 특별 기자회견
	21	•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 발표
	26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보 게재
	30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미사 시작
7	3	• 개신교 시국기도회 개최
	4	• 불교 시국법회 개최
	5	• 국민승리선언 촛불 문화제 진행. 4개 종단과 민주당, 민주노총 참여 (주최측 추산 50만 명 참가)
8	15	• 100차 촛불집회

* 『연합뉴스』 각호; 『중앙일보』 각호; 『한겨레신문』 각호에서 연구자가 주요 사건별로 재구성

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협상의 문제점과 이후 부실협상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신뢰 하락에서 촉발되었다. 하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

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정책실패와 인사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영어몰입, 0교시 등 교육정책, 대운하, 강부자, 고소영 S라인 인사 난맥 등이 이야기될 수 있다. 여기에 본질적인 정부 여당의 지지율 오관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7년 대선의 전 국민을 100으로 한 실제 투표율을 계산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0.5%대에 불과하다. 실제 투표와 지지집단 간의 간극이 70%에 육박했으나 이를 포용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해 여기에 불만이 누적되었고 결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란 생활정치 이슈가 제기되면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촛불 집회를 전후로 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고라페인들 2008).

2. 정보 확산: 정보네트워크의 형성

정보사회에서 시민운동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고 제시, 유통시키는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도 정보의 제공과 유통은 중요한 변수였다. 인터넷 토론방과 게시판에서는 광우병 문제와 수입협상 과정의 줄속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은 광우병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을 가져왔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²⁾

여기에 10대 중고생들이 학교급식문제와 관련되어 적극적인 동력이 되었고, 자녀를 둔 부모와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역시 쇠고기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만든 토론방에서였

1) 지난 17대 대선 투표율은 63.0% 였고 유효투표수 중에서의 득표율은 48.7%로서 2위 후보인 정동영에 비해 26.1%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16대 대선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득표율인 48.9%보다 근소하게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득표율은 30.5%에 불과하다.

2) 물론 <PD 수첩>의 오역과 과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광우병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PD 수첩>의 초기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게시판과 토론방, 특히 다음 포털의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는 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e-공론장이다. 미디어 오늘(2008년 6월 4일자)이 2008년 5월 3일~6월 2일 광우병 관련 인터넷 이슈 발원지를 분석한 결과 1위 다음 아고라, 2위 민노당 게시판, 3위 네이버 토론방, 4위 디시 게시판 순이었다. 무엇보다 다음 아고라의 경제, 정치, 사회, 자유 토론방 등 4개가 모두 상위권에 배치될 정도로 촛불집회에서 다음 아고라의 정보네트워크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의 법칙에 따라 정보가 확산되고 그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선별되고 다시 유통된다. 거기에 RSS나 트랙백 같은 웹 2.0 방식의 정보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음 아고라 토론방 정보유통의 한 도구가 되었다. 정보네트워크 권력을 공유하게 된 시민들은 새로운 인터넷 근거지인 토론방이나 게시판으로 모이게 되고, 지지의 강화효과(reinforcement effect)를 경험하게 되었다.

지적한 대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만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 논쟁의 e-공론장이었다. 다음 아고라는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4월 1주에는 주간 페이지 뷰(page view)가 8,000만 뷰 수준이었지만 5월 1주에는 186,994,139뷰로 증가했고 촛불집회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 1주에는 499,786,670뷰로 상승했다.

트래픽 수치상으로도 촛불집회 기간 동안 다음 아고라의 영향력은 거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게시물 수에서도 영향력과 정보네트워크 형성과정이 발견된다. 다음 아고라 게시글은 4월에는 139,000건에서 5월에는 480,000건으로 증가

〈표 2〉 다음 아고라 트래픽 추이

다음 아고라	4월 1주	5월 1주	6월 1주	7월 1주
주간 페이지 뷰**	81,132,598뷰	186,994,139뷰	499,786,670뷰	215,520,089뷰
주간 순방문자 수***	2,309,671명	3,399,528명	4,412,458명	3,051,315명

* 자료: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 주간 페이지 뷰(Page View): 하나의 완성된 웹 페이지에 접속한 수

*** 주간 순방문자(UUnique Visitor): 방문횟수가 아닌 순방문자만 집계

했다. 6월이 되면서 게시글 수는 1,114,881건으로 4월 대비 702.1%나 증가했다. 게시글은 대부분 광우병 논란과 재협상, 촛불과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한다면 촛불집회에서 인터넷 토론방의 정보네트워크 위력을 확인해 준다.

다음으로 분석한 것은 촛불관련 글의 수이다. 다음 아고라의 자유토론방에서 “촛불”이란 단어로 검색한 결과,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면 수 618개, 게시 글은 12,357개에 달한다. 여기에 “쇠고기” 등 관련 검색어를 포함하면 더욱 많은 수로 증가한다.³⁾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부터 관련 글을 검색하면 백만 건이 넘고 여기에 댓글이나 추천 등의 글을 포함한다면 수백만 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정보 확산은 토론방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커뮤니티와 다른 포털의 토론방,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의 댓글 등을 포괄한다면 인터넷에서의 정보네트워크 형성과 시민운동의 정보 제공과 유통, 수요의 경로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네트워크는 참여·개방·공유의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하는 웹 2.0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작동한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집단지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Levy 2002).

이상의 과정은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정보 습득과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 무엇보다 첫째, 의제설정 과정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인터넷의 여론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다시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방식의 의제설정이 된 것이다(조화순·송경재 2004). 둘째, 행위자 측면에서 시민의 다양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발견된다. 품질과 자발적인 글쓰기, 자신의 의견 표출, 토론방 참석, 댓글 등으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웹에서 구축했다. 셋째,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운동은 과거 전통적인 정치과정에서 의제가 형성되는 중요한 게이트키퍼인 언론과 정

3) 한편 이 같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은 단기적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사실 장기적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여론화가 시작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였다. 그 증거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쇠고기 협상” 주제어로 아고라의 자유게시판을 검색하면, 2006년 192건(댓글 1,165건), 2007년 385건(댓글 1,835건)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경재(2008) 참조 바람.

당, 이익집단, 시민사회의 권위가 약해지고 시민이 직접 새로운 정보를 공급, 생산, 소비, 유통한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이미 버만과 멀리간(Berman and Mulligan 2003, 81-83)이 지적한 바, 바이러스와 같은 정보 확산의 과정에서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연한 웹 조직화: 사이버 커뮤니티

네트워크 정보 확산과 함께 새로운 유연한 웹 조직화의 과정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형태가 약한 연대(weak ties)로 연결된 사이버 커뮤니티이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네트(net)로부터 출현한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외연은 패션, 요리, 운동, 취미, 학습, 동창 등 다양하게 표출되지만, 웹 활용의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고 자연스럽게 집단에 대한 협력과 신뢰가 강하게 축적된다(Rheingold 1993, 장용호 2002). 이런 과정을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e-사회적 자본(e-social capital)으로 해석하기도 한다(Putnam 2000).

그렇지만 촛불집회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단순히 인터넷 내에서 정보나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시위현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새롭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동을 보면 촛불집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선영아 사랑해”로 유명한 <마이클럽(<http://www.miclub.com>)>은 자체 게시판에서 광우병 관련 토론방을 오픈했다. 특히 연예정보 게시판에서는 7월 31일 현재 ‘촛불’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면 12,740개의 글이, ‘광우병’은 6,949개가 발견된다. 이들은 비조직적인 토론방이었지만 이번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하고 신문에 광고하거나, 생수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참여했다(마이클럽 회원 인터뷰 2008년 6월 27일). 주요 집회 참가자들의 참가 후기 게시, 모금운동, 시위 참여방법 공지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또 연예 관련 소식을 전하는 <엽혹진(엽기 혹은 진실)(<http://cafe.daum.net/truepicture>)>은 자체 제작한 깃발을 들고 중고생 중심으로 수집에서 수백 명씩 집회에 참가했다(엽혹진 회원 인터뷰 2008년 6월 7일). DVD전문 사이버 커뮤니티

〈표 3〉 촛불집회 동안 주요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구분	특성	촛불집회 활동
소울드레서	20~30대 여성 8만 명의 패션 커뮤니티	5월 3일 청계광장 독자 집회 5월 9일부터 광고모금 3차례 실시 (2차 모금 예: 1주일간 3,700명 참가 4,300만 원 모금)
마이클럽	여성 포털 사이트 (선영아 사랑해)	오프라인 깃발, 회원참가, 신문광고, 음식물 지원, 자발적인 모금운동
동방신기 팬클럽	가수 동방신기 팬클럽 회원 커뮤니티	5월 2일 집회 참여
미주한인 주부모임	캐나다와 미국 한인 주부 모임	광고 참여, 미주지역에서 촛불집회 주도
82 cook	여성 요리정보 사이트	소모임 나라사랑모임 결성 독자적인 행진 주도
엽혹진	엽기 혹은 진실의 줄임말 연애 정보 사이트	자체 깃발을 들고 6월 초까지 수백 명 집회 참석
MLB 파크	미국 야구 동호회	신문광고 참여광고, 온라인 토론, 직접 집회 참여 (모금운동 5일 동안 1,343만 원 432명)
SLR 클럽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직접 집회 참여, 이슈토론평 활동
DVD 프라임	DVD 동호회	집회참여, 시사토론평 토론
부산맘 아기사랑	다음 사이버 커뮤니티	광고 성금, 집회 참여
이화이언	이화사랑 커뮤니티	1,800만 원 광고성금
스노로즈	숙명여대 커뮤니티	광고 성금

니티인 〈DVD프라임〉(<http://dvdprime.dreamwiz.com>)의 시사게시판도 2008년 5월 6일 시사게시판을 열었다. 여기서 7월 31일까지 토론된 글만 5,922개에 달하고 대부분이 광우병과 정부-시민 소통 부재에 대한 토론이었고 집회에게까지 참여한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토론과 시민 자발적인 참여는 사이버 커뮤니티와 블로그로 연계된 촛불관련 커뮤니티와 게시글 수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분석 결과, 촛불집회 관련 사이버 커뮤니티는 2008년 11월 7일 현재 수천 개에 달한다. 네이버와 다음의 키워드 검색결과만 비교해도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게시글도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표 4〉 촛불집회 관련 사이버 커뮤니티의 변화

	검색어	커뮤니티	게시글
네이버	광우병	190개	74,687건
	촛불	171개	137,627건
	쇠고기	96개	88,603건
다음	광우병	385개	116,406건
	촛불	726개	652,928건
	쇠고기	207개	382,531건

* 네이버, 다음 사이버 커뮤니티 검색결과(검색일: 2008년 11월 7일)

수 있다. 물론 참여의 양만을 가지고 질적인 심의나 숙의(deliberation)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공론의 장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적인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다.

사이버 커뮤니티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곳은 〈82 cook(<http://www.82cook.com>)〉이다(테일리스프라이즈, 2008년 6월 14일자). 〈82 cook〉은 2002년 개설된 회원 10만여 명의 요리전문 사이트이다. 촛불 당시 자유게시판 트랙픽 추이는 4월 1주 주간 순 방문자(UV) 11,185명이었으나, 5월 1주 18,679명, 6월 1주 24,563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커뮤니티 내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6월 22일에는 사이버 커뮤니티 단독으로 거리행진을 하면서 100여 명이 조선일보에 향의 방문하기도 한다. 이들 외에도 디지털 카메라 정보 제공 커뮤니티인 〈SLR 클럽〉, 패션 커뮤니티 〈소울 드레서〉, 화장 정보 관련 커뮤니티 〈화장빨〉 등 많은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촛불집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해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공동체에서의 훈련과 단련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시민참여의 토대가 되는 네오 토크빌리안식 접근이 오프라인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이버 커뮤니티에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공동체가 강한 연대와 결속력을 가진 집단에서 2차 결사체

〈표 5〉 주요 비정치 커뮤니티의 주간 방문자 수 변화

	MLB Park	업흑진	82 cook	비고
4월 1주	64,126	120,237	78,294	• 촛불집회 이전
5월 1주	88,085	113,055	100,275	• 5월 2일 청계광장 첫 집회 (1만 명)
6월 1주	111,613	126,744	127,726	• 물대포, 100만 촛불 등 피크
7월 1주	88,568	119,450	128,190	• 7월 5일 2차 100만 촛불집회

* 자료: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방식으로 느슨한 연계로 바뀌듯이 인터넷 네트워크 역시 그 속성상 다양성과 수평적인 시민문화의 토대가 된다.

둘째, 시민의 변화이다. 디지털화된 시민은 다양한 사회참여를 경험했고 훈련된 민주시민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공간에서 의식있는 시민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집하고 그 매개가 사이버 커뮤니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참여 현상은 보편화되었다. 다만 정치이슈 참여가 적었을 뿐이다. 2002년 효순·미선양 촛불집회에서는 한 프로 축구 서포터스 커뮤니티가 깃발을 들고 참여한 것이나 2004년 〈디시인사이드〉라는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가 참여한 것 등 주요 정치이슈에서 사이버 커뮤니티 정치활동은 보편화되고 있다.

4. 시민이 참여하는 여론: 스트리트 저널리즘·1인 미디어

촛불집회가 네트워크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또 다른 계기는 웹 2.0 방식의 다양한 스트리트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 또는 1인 미디어의 등장 때문이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집단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된다.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본격화된 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20세기와 21세기의 전환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탈계급과 탈물질 사회, 분권화된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등장배경은 세 가지이다. 첫째, 첨단 휴대 IT 장비가 등장하고,

둘째, 자발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 마지막으로, 기존 언론과는 다른 시각의 저널리즘인 대안 저널리즘의 확장에 기인한다(송경재 2008).

스트리트 저널리즘은 1999년 시애틀에서 전개된 WTO 반대시위에서 나타난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시위대는 첨단 전자 장비를 동원하며,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해 회의를 제지했다. 당시에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활용, 인디미디어(Indymedia)라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60여 개의 인터넷 신문이 연대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현장 집회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Atton 2007, 45-56). 한국에서도 유사한 경험은 2002년 효순·미선양 촛불집회에서 나타났다. 당시는 사진과 문자들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는 초보적인 단계였다.

본격적으로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이였다. 영국 지하철 테러에서 한 시민이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이를 신문사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제보하고 참여하는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본격화한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티베트 독립시위과정을 생중계한다든가, 미얀마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군부에 대항한 동영상도 스트리트 저널리즘 범주에 속한다. 티베트와 미얀마 등 정식 기자들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찍은 한 컷의 사진과 동영상은 독립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다른 어떤 전문기사보다 분명한 의미전달이 되었다.

이와 같이 ICTs이 발전하고, 디지털에 민감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거리에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물적 환경이 조성된다. 네트워킹이 쉬운 참여·개방·공유의 웹 2.0은 시민들이 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회구조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집회 현장과 연계되는 인터넷 토론과정에서 확인된 집단지성은 웹 2.0 방식의 시민참여와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강점으로 꼽히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가속화시킨다.

2008년 촛불집회 과정에서도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리의 기자들은 인터넷에서 동영상, 댓글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여론을 만들었다. 이들의 활약상은 전문 인터넷 생방송 사이트에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6월 2일 이들의

활동이 가장 폭발적이었던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에서 “촛불”이란 단어로 검색을 한 결과 48개의 생방송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비가 오는 중에도 9개의 생방송이 운영된다. 영상 클립은 125개, 그리고 촛불집회 생방송을 준비 중인 사람인 BJ(broadcasting jockey)만 해도 98명이 등록되어 있다.

5월 2일 이후 8월 15일까지 아프리카 방송국에서 촛불을 주제로 생방송을 했던 BJ들만 425명으로 웬만한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보다 많다. 포털사이트 생중계나 블로그, UCC 등에 문자나 게시글로 중계되는 것까지 합한다면 수천 명의 시민기자들이 집회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는 셈이다. 민경배(2008, 15)는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하면서 시민이 단순한 참가자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대안 미디어로서의 1인 미디어를 발전시켰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1인 미디어의 발전은 시민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인 관점에서 언론을 우회하는 방식의 독자적인 의제설정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큰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계네트워크 구축은 첫째, 시민운동의 행위자인 시민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은 오프라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생방송을 보면서 진압과정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실제 살수차와 군홧발 진압과정이 있었던 지난 5월 31일에는 다음날 새벽부터 시민들이 과잉진압을 규탄하며 다시 시청광장으로 모이

〈표 6〉 아프리카 촛불집회 현장 생중계 추이

	하루 방송 개수	하루 시청자 수	관련사건
5월 25일(일)	473개	24만 명	
6월 1일(일)	2,501개	127만 명	물대포 강제진압
6월 7일(토)	1,357개	56만 명	72시간 국민 MT기간
6월 10일(화)	1,357개	70만 명	100만 대행진
	누적 방송 개수		누적 시청자 수
5월 25일(일)~ 6월 10일(화)	17,222개		775.4만 명

* 자료 : 나무콤 홍보팀 방송통계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는 데 철야생방송 보도는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인터넷 생방송을 보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국민의 80%가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오프라인의 여론 조사결과로 연결되었다(1인 미디어 운영자 라쿤 인터뷰).

둘째, 시민들의 활발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소통 도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의 성격과 주장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거리의 기자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즉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1단계인 정보 확산에 다시 수렴되면서 새로운 참여와 정보 유통을 위한 매개가 된 것이다. 이 같은 피드백 효과는 후술하겠지만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단순히 일방향적인 운동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적인 조직과 동원의 운동임을 확인케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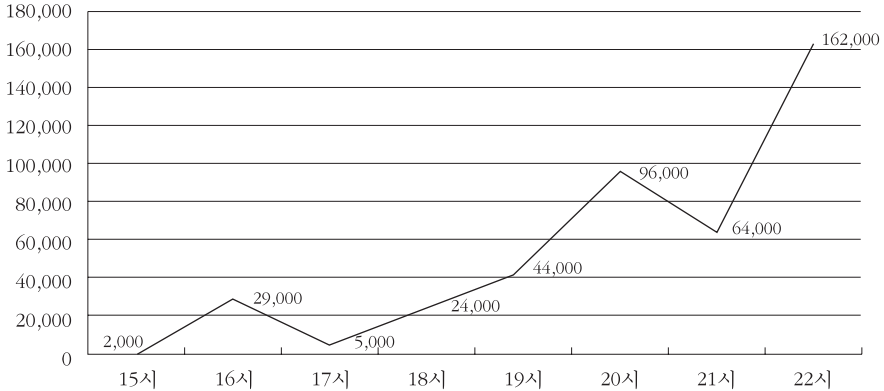
5. 참여의 게이트웨이 확대: 온-오프의 통합적 참여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시민운동은 온라인만을 무대로 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무기로 선거나 청원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참여만이 아니라, 저항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참여를 만들고 있다. 6월 10일 수십만 명의 촛불시위대가 증명하듯이, 인터넷에서 시작된 행동은 오프라인을 휩쓸었다. 그러나 이들은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오프라인 집회가 생중계되면서 행진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보며 사이버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적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사례는 여러 단위에서 확인된다. 첫째,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 자수운동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집회가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5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자와 악의적 인터넷 괴담 유포자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14일 하루 동안 1,000명 이상 자수하고 주간 방문자 수가 108,975명으로 증가하고 페이지 뷰는 1,389,952명을 기록해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둘째, 6월 10일에 있었던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웹 사이트 다

〈그림 2〉 6월 10일 청와대 웹 사이트 방문자 수 추이



* 자료: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운 사례도 전형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고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자발적인 참여 네트워크의 위력을 확인한 사례이다. 당시 100만 촛불대행진을 주최하던 사회자가 20시 30분 네티즌들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요구한다. 이 장면은 인터넷 생중계를 타고 정보네트워크로 수렴되어 불과 1분 후에 청와대 사이트는 다운되었다. 이는 랭키닷컴의 시간별 트래픽 데이터에서 증명이 된다. 20시를 전후해 순간 방문자 수가 9만 명을 넘고, 22시에는 16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시위자가 당시 60만 명(주최측 추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에서도 약 16만 명이 사이버 상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셋째, 블로그 게시물 자료를 살펴보면 촛불기간 동안의 게시글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확인해 준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2005년 5월 1일 이후 2008년 11월 7일 현재 광우병 관련 글은 129,028건인데 이 중 95.3%가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 게시된 글이다. 그리고 촛불과 쇠고기 검색 역시 각각 57%와 50%로서 상반기 동안 이들 주제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인터넷 정보망의 핵심 단어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시민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

〈표 7〉 촛불집회 관련 블로그 게시물 수 변동

	검색어	전체 블로그 게시물 (2005년 5월 1일 이후)	4월 18일 이후 블로그 게시물	비중
네이버	광우병	129,028건	123,025건	95.3%
	촛불	368,005건	209,717건	57.0%
	쇠고기	259,579건	129,004건	50.0%

* 네이버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연구자가 재구성(검색일: 2008년 11월 7일)

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민참여 통로로 등장한 것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인터넷 근거지인 토론방이나 게시판으로 모이게 되고, 오프라인에서 지지의 강화효과(reinforcement effect)를 경험한다.

IV.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동학

이상 2008년 촛불집회를 기존의 시민운동과 다른 형태인 네트워크 시민운동이란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참여자 중심의 시민운동 논의에서 보다 다차원적인 분석을 위해 층위적인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해 정보네트워크와 정보의 확산, 유연한 조직화 과정,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론 연계형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의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에서 확인된 바,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 차원에서 시민은 이슈 지향적인 운동일수록 정보네트워크에 따라 결집하고 운동에 나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의제는 이슈기반형이란 특성을 가진다(조화순·송경재 2004). 이슈 기반형이란 의미는 시민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의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일방에 의해 논의가 주도되거나 소수의 리더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탈

집중과 탈권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정에서 형성된 자발적인 참여지향성의 네티즌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둘째, 유연한 조직으로서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운동성이 확인되었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촛불집회 전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동이 부각되었다. 그 원인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공동체 활동의 “민주주의 학습 효과”와 함께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사안에 당연히 참여하고 같이 호흡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의 약한 연대 네트워크와 강한 동기집단(여성, 청소년 등)이 결합되면서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확대한 것이다. 즉 게시판, 사이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약한 연대와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동료집단 간의 강한 연대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성이·장우영 2008). 이는 시민이 정보를 습득하면서 독자적인 연계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의 형태는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다. 시민이 직접 집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동영상으로 올리고 심지어는 생방송을 함으로 집회 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을 연계해 주었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운동으로 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새로운 의제설정 과정의 변화를 유도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강원택 2007). 이런 현상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론 형성으로서의 “네트워크화된 시민 여론”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넷째, 참여의 게이트웨이가 확대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다차원적인 네트워크가 중복적이고 다층적으로 작동했다. 우선 보이는 네트워크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연락을 위하거나, 친구·동료들과 연계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이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이다. 이어서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네트워크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해주는 방식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고 새로운 시민운동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시민운동으로 표출된다.

이상 촛불집회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델화한다면 행위자

인 시민과 촛불집회 참가자는 다양한 형태의 중첩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된다. 일견 복잡하지만 이들을 연계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 정보네트워크가 연계 네트워크로,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참여 네트워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차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선순환 과정에 진행된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인터넷 현상은 거스를 수 없고 문제는 더 이상 온라인에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형성되고 무슨 결과가 발생하는지로 논쟁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고립화, 파편화, 경쟁적 개인주의, 지역 정체성(local identity)의 침식, 전통적인 지역과 가족구성의 쇠퇴, 그리고 소통 부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집단의 형성과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는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등장을 가능케 한다(Chadwick 2006, 26).

연구에서 확인된 정치적 함의는 민주화 이행기에 단련된 시민의 확대와 ICTs의 발전은 새로운 사회정치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확인된다. 인터넷 발전으로 전통적인 정치과정, 특히 시민운동의 내용과 형식은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칙과 함께 새로운 기제가 마련되고 있다. 즉 민주화 이후의 제도화된 민주주의 공간에서 훈련된 시민의 등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를 표현한다면 시민의 민주적 의식 변화와 기술발전의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촛불집회를 대상으로 기존 시민운동에서 진일보한 시민과 기술이 조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진화하는 “네트워크 시민운동 모델 또는 네트워크 군중 모델(networked civil movement or networked mobs)”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시론적인 연구만큼 보완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시민 네트워크의 역동성과 활력을 정리할 수 있는 모델화가 계속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촛불의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양산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것은 네트워크 시민운동이 등장하고 확산되고 표출되는 선순환 과정을 가정하고 분석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해결할 과제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시민참여가 의미 있는 참여로 발전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민주적 공간으로 기능하려면 그것이 가지는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참여는 단순한 고발에 지나지 않고 이것이 잘못 확산될 경우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Atton 2007; 조화순 2008). 일부이지만 선스타인(Sunstein 2007)의 주장과 같이 네트워크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입될 경우 과도한 참여로 인한 혼란도 존재한다. 그리고 달(Dahl)이 오래 전에 주장한 바, 강한 동지적 결합(like-minded) 현상이나 자기주장이 뚜렷한 소수에 의한 쓸림 현상이나 소수에 의한 과대 대표성의 문제가 온라인에서도 작동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건강성은 역설적이게도 웹 2.0의 집단지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개방적인 아키텍처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집단지성의 배경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 채널을 개발하고 이들이 새로운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의 문제점과 해결 역시 인터넷에서의 자율정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는 2005년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난 브릭(BRIC)에서 확인된 바이다. 물론 광우병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우병의 위험은 존재한다는 정보네트워크가 정부와 일부언론의 정보네트워크를 압도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과 과제를 동시에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이 네트워크를 통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정부와 시민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대의제의 위기 상황을 목도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 사회

가 민주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번 한국의 촛불집회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민주적 실험이었지만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치매개집단의 위기를 동시에 수반했다. 하지만 향후 네트워크 군중과 시민운동의 등장으로 웹 2.0의 참여·개방·공유 플랫폼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정보와 연계, 참여네트워크는 언제든지 새로운 의제형성과 시민운동의 진원지로 진화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네트워크 다중의 시민운동을 시민권리 확대와 제도화된 참여와 연계할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Corrado and Firestone 1996; Castells 2001; 강원택 2007).

[참고문헌]

- 강원택.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서울: 집문당.
- 김경미. 2006. “인터넷이 집합행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 김용철·윤성이. 2005. 『전자 민주주의』. 서울: 오름.
- 김의영. 2004.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 민경배. 2008. “촛불시위와 1인 미디어.” 언론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 반 다이크(van Dijk). 배현석 역. 2002. 『네트워크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옥인. 2001. “네트와 사회운동.” 홍성욱·백옥인 엮음.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송경재. 2008. “광우병 여론: 인터넷 괴담, 표현의 자유, e-공론장.” 언론광장 5월 발표 자료집.
- _____.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 탄핵정국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제8권 3호.
- 아고라페인들. 2008. 『아고라』. 서울: 여우와 두루미.
- 안토니오 네그리 외.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역. 2008. 『다중』. 서울: 세종서적.
- 울리히 벡.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 윤성이. 2006.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통권 30권. 187-212.
- 윤성이·장우영. 200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 장용호. 2002. 『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 장우영. 2005.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 파주: 한국학술정보.
- 조화순. 2008. “사이버 액티비즘과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촛불시위 관련 사이트 분석.” 한국정치학회 건국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조화순·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정보』 38권 5호.
- 파운드스톤 지음. 박우석 옮김. 2004. 『죄수의 딜레마』. 서울: 양문.

피에르 레비 저. 권수경 역. 2002. 『집단지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허쉬만, 엘버트 저. 강명구 역. 2005.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서울: 나남출판.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6월 14일자.

『중앙일보』, 2008년 8월 16일자.

Atton, Chris. 2007. *An Alternative Internet: Radical Media, Politics and Creativity*.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Barber, Benjamin. 1998. *A Place for Us: How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Hill and Wang.

Benkler, Yochai. 2007.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Berman, Jerry, and Deirdre Mulligan. 2003. "Digital Grass Roots: Issue Advocacy in the Age of the Internet." In Anderson, Daviv and Cornfield, Michael, ed. *The Civic Web*.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hen, Robin, and Shirin Rai. 2000. *Global Social Movement*. London: the Athlone Press.

Davis, Steve, Elin, Larry, and Reeher, Grant. 2002. *Click on Democracy: The Internet's Power to Change Political Apathy into Civic Action*. Boulder: Westview.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Kluver, R. 2005. "Political culture In online politics." In Consalvo, M and Allen, M, ed. *Internet Research Annual*. pp. 75-84.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Harris, Blake. 1999. "Empowering the Digital Citizen." *Vision* August 99. <http://www.gov-tech.net/magazine/vision> (검색일: 2006년 10월 2일).

MaCaughy, Martha, and Michael D. Ayers. 2003.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

- 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3.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Ragin, Charles. 1987. *The Comparative Meth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 _____. 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Sunstein, Cass.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PENGUIN.
- Wellman, Barry. 2001. "Little Boxes, Glocalization, and Networked Individualism." Paper presented at the Digital Cities Conference, Kyoto.

82 cook <http://www.82cook.com>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

마이클럽 <http://www.miclub.com>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실타래 <http://www.sealtale.com>

아프리카 <http://www.afreeca.com>

엽혹진(엽기 혹은 진실) <http://cafe.daum.net/truepicture>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DVD프라임 <http://dvdprime.dreamwiz.com>

MLB 파크 <http://mlbpark.donga.com>; <http://www.mlbpark.com>

〈주요 심층 인터뷰〉

사이버 커뮤니티: 마이클럽 닷컴 (나사모), 82쿵 닷컴, 엽혹진, 소울드레서, MLB 파크, 미친 소 닷넷.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뉴스 및 토론방 담당자.

동영상 운영사: 나우콤 (아프리카)

1인 미디어 기자: 라쿤.

블로거: 고재열(고재열의 독설닷컴 운영자), 김욱(거다란 운영자), 홍순성(혜민아빠 운영자), 류대성(인식의힘 운영자), 몽구.

[ABSTRACT]

Civil Movement in the Network Age: Focusing on 2008 Candle Demonstration

Song, Kyong Jae | Kyung Hee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trial to look into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ivil movement which has been forming in the network society. The study will define and analyze the networked civil movement scrutinizing at the candle demonstration of 2008 as one of the civil movement forms which appear newly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sult, the networked civil movement strengthens the interactions among the information network by on-line and off-line integrated group intelligences of citizens, and establishes the participative network. The civil movement is evolved into networked civil movement as a different form with the previous one in the spreading process of civil movement. The multilateral analysis is available at the process of networking such as information network, linked network and participation network.

Key Words | Network Age, Candle Demonstration, Networked Civil Movement, Civil Movement Platform, Daum Agora Web Site, Cyber Community, Street Journalism

